

三輪山神話をめぐる鉄文化の諸相

—鉄文化に彩られた三輪山神話—

百田 弥栄子*

(一) 三輪山神話の里

奈良駅から桜井線に乗って三輪という駅で降りる。この線は今は“万葉まほろば線”とも言うそうで、ぼくぼく歩いて行くと、畑の間にしもたやがぼつんぼつんとあるような風景が広がっていた。あたかも万葉の世に分け入ったかのようなのである。大きな鳥居に導かれるままにひたすら参道を進んで行くと、大神神社おおみわに行きついた。日本最古と伝わる神社である。壮麗な拝殿で頭を垂れてふと見ると、その奥に三つ鳥居があり、更に奥には三輪山（467メートル）の優雅なお姿がある。全山松、杉、檜等に覆われ、古来より神霊がお鎮まりになるお山として崇められている神体山である。主神は蛇のお姿のオオモノノスシ大物主大神。三輪山を登れば、中腹から山頂にかけて、多くの磐座いわくら（神のよります大きな岩石）がごろごろしている。神の御座所である。

このように、三輪山には本殿がなく、拝殿から三つ鳥居を通して拝すという原初の神祀りの形式が伝えられている。三つ鳥居は鳥居を三つ組み合わせた「三輪鳥居」と呼ばれる特徴的なもの。中国の伝統的な建築様式である牌坊とか牌楼とかいう門に似る。

この大和盆地の西麓には、三輪山や巻向山、龍王山等の山々から狭井川や巻向川、初瀬川など幾筋もの川が流れ下り、池沼の湧水も豊富である。蛇にとっては思いの丈活躍できる環境であった。霊水は万病に効き、とりわけ眼病に有効という。清い水は甘露な酒造りに重宝で、大神神社の拝殿にはご神体・三輪山の杉葉で編んだ、直径1メートルを優に超える大きな杉玉が飾られていた。この杉玉は大神神社に由来するといい、お酒の神様を祀る社としてもその名が高い。そこで神に供える神酒をミワ（神酒、御酒）という。

この大和盆地の西麓はかつてのやまと大和王権の発祥の地で、政治や経済、文化の中心地だった。三輪山麓の金屋にあるつばいち海柘榴市は古代の市跡で、交通の要地に当たり、交易も盛ん。訪ねてみると、小さな広場の奥まった所に観音像がひっそりとあった。この周辺はうっそうと茂った樺の林だったという。人々が集まる市の日には、歌垣も賑やかに

*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

鳥が止まる故に島木であり鳥居である

下村克彦*

本稿の要旨

本稿は、次の1～5について提言する。

1. 鳥が止まる故に「島木」である。
命名由来不詳であった島木は、鳥が止まる故に最上部横架材を島木と呼称したのである。
2. 島木に鳥が止まる故に「鳥居」である。
立てた棒や柱の先端、及び、棒や柱に渡した縄や横架材に鳥が止まるのは極自然なことであり、鳥居と呼称したことも自然なことである。
3. 単制の最上位は島木、複制の最上位は旧来と同様に笠木と呼称する。
複制は上下2段で、下部を島木、上部に被せた部位が笠木である。
4. 最上部横架材が単制の鳥居を島木鳥居、複制の鳥居を笠木鳥居と命名する。
旧来は単制（神明系）の鳥居を笠木鳥居、複制（明神系）の鳥居を島木鳥居と呼称してきた。旧称と逆転し紛らわしいが、単制も複制も最上部の部位名称で均斉がとれ、さらに、名は形たいを表し内容的にも認識し易い筈である。
5. 鳥居の本義は結界である。
精霊を招く招代おぎしろから進化した鳥居の本義は結界である。

*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主席研究員

巴布札布一族の日本留学

— 経国学園開園関係資料を中心に —

横 田 素 子*

はじめに

小論は、巴布札布一族の日本留学に関し、述べるものである。

筆者は拙稿「巴布札布子弟に関する留学の記録」¹を2016年に発表しているが、今回、敢えてまた巴布札布に拘泥し、首題を「子弟」から「一族」とした。その理由は後段で述べることとする。

さて、先の拙稿では該留学が川島浪速の巴布札布遺児引取りに端を發したものであり、「巴布札布の死に対する「斷腸の思ひ」と憐憫の情といった感情の發露によるものであった」²とする個人的縁故関係によるものであると結論付けた。よって、筆者がこれまで長年に亘り「内蒙古における近代学堂の創設と留学事業」について研究に努め、その留学事業を3期に分類したが、巴布札布子弟の留学はそれらとは異なるものとした。

ここで今一度、筆者のいう3期を披歴するならば、第1期は、近代日本における最初のモンゴル族学生の留学事業となった明治39年(1906)の3グループ9名³の留学事業であり、彼らは渡日とともに男子は「振武学校」、女子は「実践女学校」に入学したのであった。続く第2期は、「経国学園」創設に関わる留学事業であり、この時の留学生らは近代日本におけるモンゴル族初の機関誌刊行⁴を成し遂げたのであった。そして第3期は、善隣協会創立による善隣協会専門学校蒙古留学生特設予科への留学事業であるとした。

以上、概ね3期に大別し、それを主幹としてその枝葉末節に至るまで調査研究を試みるといった手法に則り、拙稿を發表し続けてきたのである。それらは次のとおりである。

* 期毎發表年順

〔第1期〕

- 1 喀喇沁右旗学堂と日本人⁵
- 2 内蒙古喀喇沁右旗에서의 학당창설⁶
- 3 内蒙古喀喇沁右旗学堂生徒の日本留学⁷

* 東アジア歴史文化研究所 教授・内蒙古大学 客員教授

日本善邻协会在内蒙古活动的记忆

——《善邻协会史-在内蒙古的文化活动》

娜仁格日勒*

《善邻协会史——在内蒙古的文化活动》由善邻会（代表音尾秀夫）编纂、于1981年劲草出版中心出版。编撰委员会成员有音尾秀夫、野副金次郎、横山辉、奥山茂、四茂野薰、春日行雄。该书以回忆录的形式，通过善邻协会会员的回忆，记载了善邻协会的成立、演变及其活动，对于研究日本侵略内蒙古以及中日近代关系史有着重要的史料价值。本文就该回忆录做一评介。

回忆录共约230个目录，其中约一半是回忆文章，其余是协会刊行的杂志的目录，共约430页，并附有相关表格、图片以及地图等。

1934年初，日本军部为推进“满蒙”扩张政策设立的其下属外围组织“善邻协会”，直到1945年二战结束，一直活跃在日本和内蒙古地区。善邻协会打着“善邻友好、文化向上”的旗号，开始时主要针对蒙古族，后来又包括回族、汉族，展开了调查、医疗、教育以及畜牧指导等活动，进行拉拢和怀柔，营造亲日氛围，实施渗透。善邻协会在内蒙古的活动实质上是文化侵略。

善邻协会在内蒙古地区活跃十余年，其开展的种种活动必然会在这片土地上留下印记。本文作者希望读者以日本的侵华战争为背景了解善邻协会的成立、发展、衰败和瓦解的过程，分析善邻协会在内蒙古地区从事的各项活动，从而有助于对善邻协会的认识和评价，认清其实质，进而深入理解抗日战争期间在内蒙古这片土地上发生的重要历史事件，正确客观地思考和认识历史。下面根据《善邻协会史-在内蒙古的文化活动》的回忆文章，对该协会做一介绍和分析。

善邻协会的设立与笹目恒雄有密切关系。出于为日本的侵略活动服务的目的，直到1931年为止，笹目恒雄在东京创办戴天义塾专门培养蒙古青少年。1933年3月，通过出口王仁三郎认识了大嶋丰，与后者协商，又在林铄十郎、松井石根、山本条太郎、古仁所丰、池田成彬等的援助下，于齐藤贡经营的转换时代社¹创立了“日蒙协会”。10月，聘任依田四郎为“日蒙协会”理事长，同时，将事务所搬迁到涩谷区千駄谷。野副金次郎、吉田瑞穗、藤井泷夫、石仓寅吉等人也迅速前来参加。不久，依田四郎就任伪满洲国兴安总

* 内蒙古大学外国语学院教授·東亜歴史文化研究所教授

汉高帝被围困“于白登七日”的真正原因

——关于“白登之围”前匈汉双方投入兵力考

阿尔丁夫*

据说，“白登之围”对汉高帝从而对汉朝，是一件生死攸关的大事。在我看来，没那么严重。要知道“匈奴之对中国（按：指汉朝），一时尚无政治上统治之野心，其举众入塞，所重在经济财物之掠夺。”¹如同军臣单于时期，“汉使马邑下人聂翁壹……佯为卖马邑城，以诱单于。单于信之……乃以十万骑入武州塞”一样，“目的是贪马邑财物”。“白登之围”是由“马邑事件”引起的；而“马邑事件”是由韩王信“都马邑”引起的。最初的“马邑事件”不过是汉匈之间发生一次边境摩擦性质的事件。后来，由于“匈奴冒顿大围信，信数使使胡求和解。汉发兵救之，疑信数间使，有二心，使人责让信。信恐诛，因与匈奴约共攻汉，反以马邑降胡”。七年冬，汉高帝统率三十二万大军“自往击之”。这样一来，本属边境摩擦性质的“马邑事件”就有可能逐步升级匈汉两国之间严重对峙和争斗的大事件。汉兵初期便节节胜利，汉高帝以为匈奴冒顿单于统帅的骑兵不堪一击，被小胜冲昏头脑，冒顿单于故意“佯败”，汉高帝则率领骑兵“逐北”。结果匈汉之间还没来得及打一大仗，汉高帝及其所率骑兵便被匈奴冒顿单于所率骑兵围困于白登，陷入“七日，汉兵中外不得相救饷”的危险境地。太史公谓“步兵未尽到”。不要说“步兵”，即便是骑兵，如果长时间处于“逐北”状态，有些也是难免会掉队的。“白登之围”时，匈汉双方各投入多少兵力？这涉及到当时战场上双方力量对比孰强孰弱问题。在几乎所有的研究者看来，这个问题早已解决，根本就用不着“考”。“冒顿纵精兵四十万骑”，而汉高帝却只率领“三十二万”且多步兵。史书上记载得清清楚楚，还用得着去“考”么？

在我看来，问题远没有那么简单。若干貌似正确甚至无懈可击的看法，经过对匈汉双方各投入多少兵力的考辨，其结论恐怕要颠倒过来。

* 内蒙古师范大学教育学院 教授

论三十年代谭云山在喜马拉雅学研究上的贡献

何大勇*

摘要：二十世纪三十年代，我国驰名中外的学者谭云山，在泰戈尔创办的印度国际大学任教及担任中国学院院长。他先后在南京和印度的圣地尼克坦，创办蔡元培任会长的中国中印学会，泰戈尔任会长的印度中印学会。他通过社会调查，对我国西藏、印度、尼泊尔、不丹、俾路支等喜马拉雅山域内，及毗连国家或地区的地理、历史、政治、经济、社会、文化、生态、民族、宗教、民俗及遭受英帝国主义侵略的情况进行系统研究。1931年，他在上海《社会杂志》第1、2期合刊，发表《西藏的社会现状--对新声社记者谈话》；又在1931年，在上海《时事月报》发表《关于西藏》；1933年，在南京出版《印度周游记》；1935年，在上海出版《印度丛谈》等著作，《印度丛谈》中除印度以外，还有研究喜马拉雅山、尼泊尔、不丹、锡金、俾路支王国的专篇。其著作的一个重要价值，就是在我国学科发展史上，首开了喜马拉雅学研究的先河。本文力求对他的喜马拉雅学成果进行评介，为创建新时代以习近平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为指导的中国喜马拉雅学，提供历史借鉴。

关键词：谭云山；三十年代；喜马拉雅学；评介

引言

谭云山（1898 -1983）是我国著名的印度学家、藏学家、喜马拉雅学家，生于湖南省茶陵县。早年师事我国革命老人徐特立，参加过新民学会、新文化书社和毛泽东领导的革命活动。1924年赴南洋马来西亚教书，1927年，在新加坡会见印度的诺贝尔奖金获得者、诗圣泰戈尔，并应泰戈尔邀请，赴印度国际大学任教。1930年，他陪国民政府派赴西藏的特使谢国梁，由仰光经印度去西藏，谢病死途中后，他去拉萨向十三世达赖递交政府文件，多次拜见达赖，并在西藏进行社会调查，写出《关于西藏》《西藏的社会现状--对新声社记者谈话》。¹返印后，他周游印度，调查印度的政治、经济、文化、宗教、民俗等情况，写成《印度周游记》，由蔡元培题写书名，1933年在南京出版。这年2月起，又写《甘地与泰戈尔》等56篇学术论文，边写边在上海《申报月刊》发表，1935年7月，他将这些

* 云南民族大学 云南省民族研究所（民族学与历史学学院）研究员·东亚历史文化研究所教授

한국의 서울소재 고궁과 인사동거리 한복 착용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이 병 화*

I. 서론

서울의 대표적인 궁궐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의 5대 궁궐과 종묘를 들 수 있다. 이곳은 과거 조선시대의 찬란한 궁궐문화를 볼 수 있고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아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한국문화의 집합이라 할 만한 장소이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인사동은 북촌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한번쯤 가보고 싶은 곳으로 고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한복 착용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한복착용을 확산시키기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라 여겨져 인사동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본 행사는 2015년 8월 15일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한국의 계절로는 한 여름에 해당하는 무더위가 절정인 시기이다. 무더위에도 한복을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한복이 일상복으로 착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은 사계절 한복착용의 확산을 중점으로 고궁 근처와 인사동 거리를 찾는 자에게 한 여름에도 한복착용이 가능함을 체험하게 하여 한복착용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은 한국문화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사 기간 동안 한복 착용자에게 고궁과 인사동 문화를 즐기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대효과는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이 한복의 멋을 느끼게 될 것이며 한복착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한복문화를 향유하고 생활화 하는데 익숙해질 것이다. 한복이 언제 어디서나 착용 가능한 것이고 한복에 대한 친숙함을 느끼게 되어 미래에도 거부감 없이 착용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고궁거리에서 한복을 착용하고 궁궐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잠재고객을 확보하게 되고 한복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어 한복착용이 확산될 것이라 여겨진다.

* 한복산업센터 장

豊基人絹의 由來와 特性

이 연 (李 姪) *

I. 序論

인견은 비스코스 레이온(viscose rayon)이며, 이는 재생된 셀룰로오스로부터 제조된 인조섬유로 목재 펄프(pulp)나 면의 린터(linter)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섬유이다. 풍기인견은 오랜 전통을 가진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의 주요 특산물이다. 과거에는 강화도, 서울, 부산 등 우리나라 곳곳에서 인견이 생산되었으나, 현재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 곳은 풍기뿐이다. 풍기는 전국 인견직물 80% 이상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 인견섬유의 생산지이며 인견에 대한 다양한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 및 풍기인견의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풍기인견이라는 직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으며, 풍기인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리학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풍기인견의 역사와 변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간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물리적 특성, 문양, 그리고 직기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였다. 문헌은 선행연구와 고문헌(『세종실록지리지』, 『임원경제지』) 그리고 근현대의 신문자료(경향신문, 한겨레, 매일경제, 동아일보, 연합뉴스, 경성일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지를 방문하여 풍기인견 산업 관련 종사자 총 17인을 대상으로 풍기인견의 역사, 변천, 시대별 사용 직기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그중 6인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였다. 조사과정 중 수집한 인견은 시기별로 분류한 후 현미경 촬영을 하고 조직과 실의 특성, 직물의 두께와 밀도 등을 정리하였다. 직기는 현재 풍기에 현전하거나 사용했던 직기를 중심으로 조직의 원동력과 구조에 따라 분류 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풍기인견의 현황에 대한 연구는 인터넷 자료((사)풍기인견발전협의회 홈페이지, 풍기인견협동조합 홈페이지), 자치단체 관계자 면담 그리고 선행연구의 자료를 종합하여 고찰하였다.

*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